

불자라면 육바라밀 실천해야

으로 향했다. 주말에는 등산객들에게 무료로 점심공양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여나 사람들이 허기진 배를 안고 산을 내려갈 것을 염려해서인지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많이 먹을 것을 권했다. 인자한 스님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지니 관세음보살이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지실에 들어서니 터 자체가 좁아서인지 오색하기 이를 데 없다. 수행자는 무소유의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덧붙였다. 은사인 청담 스님 사진과 서옹 스님의 서예 작품 한 점이 아늑한 맛을 풍길 뿐이다. 혜정 스님은 은사 스님 이야기로 대화를 이어갔다.

“정화운동이 한창일 때는 사님이 ‘내가 너희하고 같이 갈 때에 혹시 누가 와서 나를 때리더라도 너희는 절대로 그 사람을 때리지 마라. 오히려 나에게 인과(因果)를 믿으라고 말을 해야 한다’ 라고 했어요. 그때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청담 스님이 사셨던 세월을 넘기고 나니 이해가 되네요. ‘인과를 알고 믿는 것이 바로 불교의 지고지상의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청담 스님은 상좌들의 장삼을 곧잘 다려줄 정도로 하심(下心)이 몸에 익어져 있었다. 하심은 인욕(忍辱)에서 생기는 것이며, 인욕이란 자기를 잊었을 때 자기를 버렸을 때 비로소 성립되는 것이라 한다. 우리네 개념으로 참아야겠다고 생각해 억지로 참는 것은 이미 인욕이 아니라고 했다.

혜정 스님은 고등학교 2학년 때 형님과 함께 우연히 봉암사에 놀러 간 것이 출가의 계기가 됐다. 그때 장삼을 입은 스님과 처음으로 마주했는데, 그 분이 바로 ‘봉암사결사’를 주도했던 성철 스님이다. 성철 스님은 ‘인생무상을 들려주면서 사람들은 백년도 못 살면서 천년을 살 것처럼 쓸데없이 집착을 부린다’면서 “생사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학교 공부도 다 소용없는 것”이라 했다. 스님은 성철 스님의 말씀이 매우 슬깃해 집으로 돌아가서 며칠 만에 다시 봉암사로 돌아와 수행자의 길을 걷게 됐다.

봉암사는 공주규약(供主規約)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었기에 행자생활 또한 엄격했다. 그때는



말씀은 그대로 법이었다”면서 “은사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너무나 존경하기에 그대로 따르게 되더라”고 회고했다. 혜정 스님은 도반 서너명과 함께 영어회화를 배우며 뉴스워킹지반까지 다니면서 영어 실력을 연마했다. 국제 포교사로 종단의 통역관으로 활약하기도 했다. 하지만 어느 날 ‘수행자는 도를 깨치는 일이 본분사’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뒤로 영어공부를 접었다.

스님은 불자라면 육바라밀(六波羅密)을 실천해야 함을 강조했다. 육바라밀인 보시(布施), 지계(持戒), 인욕(忍辱), 정진(精進), 선정(禪定), 지혜(智慧)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해서 안 되는 것이며,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 수행덕목으로 삼아라고 했다.

“사람들은 가진 것이 많아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족한 가운데 나눌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보시입니다. 화가 나더라도 참고 참다 보면 그것이 인욕바라밀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정진하다보면 지혜가 생기고 지혜를 갖춘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부처의 마음을 깨우치면 천지 우주간 부러움과 두려움이 없단다. 내가 바로 너요, 내가 바로 우주요, 내가 바로 자연인데 부러울 것이 뭐있겠느냐는 것이 스님의 말씀이다. 좀더 높은, 좀더 많은 권력과 명예와 부를 소유하기 위해 허덕이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따끔한 경책이다.

글·사진=문운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혜정 스님은...

봉암사에서 청담스님을 은사로 득도. 1958년 해인사 강원 대교과 졸업. 문경 봉암사, 합천 해인사, 마산 성주사에서 수행정진. 조계종 총무원 교무부장, 동화사 주지, 해인사주지 직무대행, 조계종 종회의원 역임. 지금은 청담문화재단 이사, 도선사 조실, 청담학원 이사이며 삼각산 문수사에 주석.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58. 상언고암 대종사

고암(古庵, 1899~1988년) 스님은 조계종 제3~4대 종정을 지내신 분이다. 법명은 상언(祥彦)이고, 자호가 환산(歡山)이다. 1904년 경기도 파주에서 태어나 적성보통학교를 나오고, 1918년 해인사 재산 스님께 출가해 3·1운동 때는 개성과 서울 연락적으로 활동했다고 한다.

1922년 해인사 용성 스님께 계를 받고 25년 강원을 졸업, 1939년부터 전국 선원을 돌며 용맹정진한 뒤 해인사·표충사·범어사 조실을 지냈다. 1958년 직지사 주지를 지내고, 1978년 인도 성지순례를 다녀와 1988년 하와이 대원사 조실로 계셨다.

필자와는 하와이 대원

같이 지냈는데, 두 번은 본토(미국)에서 불사가 있어 출타하셨기 때문에 법지 못했다. 언제나 보면 작은 봉투에 10불(佛)짜리 서너 개 넣어주시며,



마시고.”

“고암소. 반듯이 병든 곳에 약으로 쓰지. 돈이라는 것은 이리저리 잘 돌으라고 해서 돈이라는 사람이 아름답게 꾸며지게 하거든.”

이것이 법문이다. “스님, 법문해 주세요.” 하면, “내 법문 신도님들이 다 해놓고, 또 나 보고 무슨 법문 해달라고 하는 거요.”

하도 천진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천진성을 듣기 위해 자주 사정하게 한다. 누구고 사정하면 안 들어 주는 일이 없다.

1987년 본토에 계신 어

조계종 3~4대 종정 지내...천진하기가 삼척동자와 같아

사에서 만났는데, 천진하기가 삼척동자와 같았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아무도 몰래 공양주 채공을 겸해 한상씩 차려 놓으면 6시 예불에 참석하신 보살님들이 즐겨 먹으며 공양주를 찬탄한다.

“한국 음식 맛은 진짜 대원사에 와서 본다니까, 얼마나 부지런하면 새벽같이 일어나 이렇게 된장국을 맛있게 끓여 놓담!” 스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그저 “많이들 잡수세요”하고 잘 먹고 가는 것만 고맙게 생각한다.

삼척동자가 와서 절을 해도 언제나 큰 절로 답하며, “우리 아기 부처님께 절을 받으니 나도 마음이 젊어지는 것 같구나.”

하시고 사랑 하나씩을 나누어 주시며,

“성불 하십시오.” 한다. 하와이 대원사에서 주최한 여덟 번의 강의에 여섯 번은

“객지에 나오면 씬쌌이 헤프게 되니 조금이라도 보태 쓰게. 나는 자네 덕분에 불교 교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기게 됐어.” 하고 손을 꼭 잡아 주셨다. 너무나 다정하고 천진한 부처님, 이 부처님 때문에 하와이 불사가 원만히 회향했다고 생각한다.

항상 미소 짓는 얼굴에 짜증 섞인 빛을 보지 못했다. 보살님이고 스님이고 좀 실답지 못한 사람들이 와서 괴롭게 해 주시느님이 짜증을 내면,

“오죽하면 절에 와서 사정하겠나. 그래도 부처님 돈을 가져 가면 더 이상 나쁜 사람은 되지 않을 것이야.”

하고 그동안 신도님들께서 한 두 푼씩 모아 주신 것을 내 놓는다. 그렇기 때문에 스님 주머니에는 단돈 100불 가지고 있을 때가 드물다. 신도님들이 용돈 주시며,

“악 하십시오. 또 헛되게 쓰지

면 스님이 오셔서, “선에만 계시지 말고 본토에 오셔서도 포교해 주세요.”

“말을 잘 할 알아야지.” “스님은 가만히 앉았만 계셔도 포교가 저절로 됩니다.”

“그럼 가 불까!”

해 나섰다가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로 1년 동안 고생하시다가 1988년 세수 90으로 돌아가셨다.

“말에는 땅이 있고 위로는 하늘이 있다. 하늘은 땅이 모두 여기서 생겨났는데

여기를 알겠느냐. 하와이는 미국에 있고 백두산은 한국에 있다. 하 하 하!”

이것이 스님께서 나에게 마지막 들려주신 법문이다.

현대불교현불샵 입점 기념 특별 세일전 17%DC

전통오동나무참숯반닫이에 소중한 물건을 보관하세요!!!

주의!! 서랍장 큰 충격을 주지 마세요. 사용하기 전 7일 이내 반쯤 가능합니다.

옛고방 전통오동나무 참숯반닫이 (압축 참숯부착)

- 대한민국 명장 가공국선생(명장04-14호)께서 디자인 하시고 직접 검수 후 검수필증 부착.
- 습기를 피해 쾌적한 수납공간을 제공하는 고급 반닫이(숯판부착).
- 장마철에 주의해야 할 옷이나 수의도 안심보관.
- 제기 및 제수용품 보관함, 보석함, 고가의 도자기 등 귀중품 보관으로도 OK!!!

전통 오동나무 참숯 반닫이의 특징

고급 가구재인 오동나무와 참숯판을 접목시켜 습기제거, 탈취, 향균 등의 기능을 더한 고급 반닫이입니다. 더운 여름 장마철에 습기때문에 보관하기 어려운 수의, 제기, 옷, 서류 등 귀중품 보관이 용이합니다. 집안 어디에 놓아도 보기 좋게 어울리는 인테리어 효과 만점입니다.



- 가 격 : 대형 ₩ 238,000 ⇒ ₩ 198,000 (17% DC) [가로 73cm × 세로 41cm × 높이 65cm]
- 소형 ₩ 198,000 ⇒ ₩ 158,000 (17% DC) [가로 59cm × 세로 41cm × 높이 65cm]
- 재 질 : 오동나무, 오동나무합판(뒷면), 신주장식 참숯판(골참나무 100% 국내산)
- 원산지 : 한국 · 제조원 : 옛고방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중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